

태극마크 열정 계량화, ‘누적 점수제’ 어떨까요?

손흥민 병역 혜택에 관심 쏠리지만
1등 보다 맘·열정에 박수치는 시대

대회·성적 따른 누적점수 해법도
사회적 합의 위한 대화의 장 필요

최근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력특례가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있다.

운동선수에게 20대는 자신의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기다. 한편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나이다. 이 상충된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다.

운동선수 병역특례가 도입된 배경이다. 이는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올림픽에서 3위 이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가능하다. 월드컵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박지성, 이영표 등이 군 면제를 받은 건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정된 예외 사례다. 병역특례를 받은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종사기간만 채우면 된다.

현재 축구 종목이 뜨겁다. 시선은 손흥민(토트넘)에게 쏠린다. 그는 절실하다. 1992년 7월생으로 올해 만 26세인 손흥민은 27세가 되는 내년 7월까지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고등학교 중퇴인 손흥민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편입되는데,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의 마지막 기회다.

그는 대표팀 엔트리(20명)에 와일드카



한국축구의 대들보인 손흥민에게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의 성적에 벌써부터 커다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다. AP뉴시스

드로 뽑혔다. 아시안게임 출전연령은 23세 이하다. 여기에 23세를 초과하는 3명의 와일드카드를 넣을 수 있다. 손흥민은 동갑인 황의조(감바 오사카), 1991년생 조현우(대구)와 함께 선발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군 미필이라는 점이다. 다분히 병력특례를 감안한 발탁이다.

이런 까닭에 정작 아시안게임은 안 보이고, 손흥민과 군 문제만 부각된다. 황의조 선발 논란을 별개로 하더라도 한 개인의 병력특례 여부에 지나칠 정도의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외신들도 손흥민의 군대 문제를 다룰 정도다.

축구뿐 아니다. 야구에서도 나이 짝 찬 선수를 아시안게임 대표팀 엔트리에 넣어 뒷말이 무성하다.

병력특례와 관련된 찬반 여론은 비슷하게 나온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응답이 43.9%로 각각 나왔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은 국위선양을 얘기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를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2년 월드컵 4강이나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이 전해준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반대하는 쪽은 평등에 무게를 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징병제 아래에서 특정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다.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거론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다만 병역특례가 현실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오직 1등에게만 영광하는 시대는 지났다. 금메달만 바라지 않는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숙이는 전근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메달 색깔보다는 그들의 맘과 열정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 그만큼 우리의 시민의식은 성숙했다.

이는 제도를 손봐야 하는 이유다. 구기종목의 와일드카드가 더 이상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각에서 제안한 누적점수(포인트)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회 규모와 메달 획득여부 등에 각각 포인트를 매기는 방식이다. 선수들이 흘린 땀의 양을 계량화하는 것인데, 한 대회만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온 선수들에게 유리하도록 손질하자는 내용이다. 여러모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제안뿐 아니라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도, 선수도, 팬도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전문기자 choing2@donga.com·체육학 박사

조 매카시의 야구선수 성공 10계명



조 매카시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전설 같은 업적을 쌓은 명장이다. 그는 야구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10계명을 남기기도 했다. 스포츠동아DB

조 매카시(1887~1978년)는 24년의 오랜 메이저리그 감독 재임기간 동안 화려한 경력을 쌓은 명장이다. MLB 역사상 최초로 내셔널리그(1929년 시카고 컵스)와 아메리칸리그(1932년 뉴욕 양키스)를 모두 제패한 감독이자, 최초로 월드시리즈 4연패(1936~1939년 양키스)를 달성한 사령탑이다.

1926년 컵스에서 감독생활을 시작해 양키스~보스턴 레드삭스를 거친 그는 선수로서 메이저리그 경기 경험은 없다. 감독으로 통산 2125승1333패를 기록했다. 페넌트레이스 통산 승률(0.615)과 포스트시즌 통산 승률(0.698)은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다. 리그 우승 9차례와 월드시리즈 우승 7차례의 성적을 냈다. 1957년 베테랑위원회 선정으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당시 야구기자들은 그의 능수능란한 지도력을 인정해 ‘마스터(대가) 조’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1949년 양키스를 지휘할 때 그는 야구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10계명을 자주 말했다. 알아두면 좋을 매카시의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 ①공 뒤를 어슬렁거리며 따라다녀서는 좋은 야구선수가 될 수 없다.
- ②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휘두르지 않으면 절대로 3할 타자가 되지 못한다.
- ③주자 뒤로 공을 던지는 외야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과 같다.
- ④항상 웅감하게 머리를 저고,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지 말라.
- ⑤슬라이딩은 과감하게 해라. 도중에 머뭇거리면 다친다.
- ⑥불규칙 바운드에 핑계를 대지 말라. 쉬운 타구는 누구라도 잡는다.
- ⑦항상 끝까지 밀어붙여라.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 ⑧화난다고, 힘들다고 야구를 그만두지 말라. 후회한다.
- ⑨심판과 자주 싸우지 말라. 너만큼 심판이 완벽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 ⑩컨트롤이 없는 투수는 아무 것도 아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정재우의 MLB 트래커

후반기 판도 가을 대형 변수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린 18일(한국 시간), 별들의 축제가 코앞인데도 포커스는 엉뚱한 데 맞춰졌다. 매니 마차도가 볼티모어를 떠나 LA 다저스로 향할 것이란 보도가 넘쳐났다. 올스타전 도중에는 ‘마차도가 미래의 팀 동료 맷 켈프와 함께 셀피(핸드폰 촬영 사진)를 찍었다’는 단신이 속보로 전해졌다. 2회말 내셔널리그 선두 타자로 등장해 2루타를 친 다저스 간판타자 켈프를 2루에서 마주친 아메리칸리그 유격수 마차도가 다정하게 셀피를 찍은 장면마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올스타전을 마친 메이저리그는 20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어 7월말에는 그간 루머가 난무했던 트레이드시장이 달한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각 지구 유력주자들의 희비 또한 갈린다.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다. 후반기 승리 하나하나가 포스트시즌과 직결된다. 전반기 윤택을 드러낸 각 지구의 판도를 뒤흔들 후반기 변수들을 짚어본다.

●트레이드

트레이드시장의 승자는 가을에 웃을 수 있다. 2년 전 시카고 컵스는 트레이드 마감일에 임박해 뉴욕 양키스 마무리 아롤디스 차프만을 사실상 ‘단기임대’로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결과는 대성공. 컵스는 ‘염소의 저주’를 끊고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마친 차프만은 그해 말 5년 8600만달러의



매니 마차도(왼쪽 사진)의 행선지는 올스타전이 열린 18일(한국시간)에도 특급 뉴스였다. 후반기 판도를 뒤흔들 초대형 소재이기 때문이다. 클레이튼 커쇼(가운데 사진)의 부활도 LA 다저스의 후반기를 좌우할 필수조건이다. JD 마르티네스가 전반기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보스턴의 후반기 전망 또한 쾌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AP뉴시스



브리튼·헵·해밀스·디그롬도 협상중 마르티네스 3관왕, NY 견제의 열쇠 다저스 선두 유지, 커쇼 부활이 관건

프리레이전트(FA) 계약을 맺고 양키스로 복귀했다. 다저스도 2년 전 컵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비단 마차도만이 아니다. 잭 브리튼(볼티모어), JA 헵(토론토), 콜 해밀스(텍사스),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 등 투수들을 중심으로 물밀듯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팬들에게는 특히 추신수(텍사스), 오승환(토론토)의 트레이드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연속경기출루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추신수는 2020년까지 남은 5000만달러 가량의 연봉과 내셔널리그 팀으로 제한된 행선지가 부담스럽다. 수준급 볼펜투수인 오승환의 이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JD 마르티네스

보스턴 외야수 JD 마르티네스는 전반기 92게임에서 타율 0.328, 29홈런, 80타점을 올렸다. 타점은 아메리칸리그 1위, 홈런은 공동 1위, 타율은 3위다. 마르티네스가 2012년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에 이어 6년 만에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타율이 관건이다. 0.359로 이 부문 1위인 팀 동료 무키 베츠를 넘어야 한다.

마르티네스의 방망이가 주목되는 이유는 또 있다. 보스턴이 라이벌 양키스의 추격을 따돌리고 지구 1위를 지키려면 마르티네스의 ‘3관왕 모드’가 유지되어야 한다. 보스턴은 전반기를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0.694)인 68승30패로 마쳤지만, 양키스 역시 62승33패(0.653)로 준수했다. 양키스의 쌍포 애런 저지(타율 0.276·25홈런·60타점)-지안카를로 스타텐(타율 0.278·23홈런·55타점)은 언제든 마르티네스와 보스턴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클레이튼 커쇼

다저스는 주축선수들의 연세 부상과 부진으로 한때 지구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켄프(타율 0.310·15홈런·60타점), 맥스 먼시(타율 0.271·22홈런·41타점), 로스 스트리플링(8승2패·방어율 2.08)의 분전 덕분에 전반기를 53승43패, 지구 1위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구 2위 애리조나(53승44패)와는 불과 0.5게임차다. 다른 핵심전력들이 되살아나야 한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어깨가 무겁다. 2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커쇼의 전반기 성적은 3승4패, 방어율 2.74다. 구위도 예년만 못하다. 개막 직후부터 위태로웠다. 다행히 6월 이후 최근 5차례 등판에선 2승무패, 방어율 2.70으로 서서히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포스트시즌 통산 7승7패, 방어율 4.35로 부진했던 커쇼지만, 에이스는 에이스다. 그동안 선발진 보강은 없었던 다저스이기에 더욱 커쇼의 부활이 중요하다.

전문기자 jace@donga.com